

송대극회 제54회 봄 정기공연

바다의 스키타

작 / 김현묵
기획 / 한석운
연출 / 손미라
각색 / 송대극회

- 일시 / 1996년 3월 7일(오후 6시)
8일(2시·6시), 9일(1시·5시)
- 장소 / 송실대학교 대학극장
- 주최 / 송대극회
- 후원 /  일신방직 · (주)조선맥주

모시는 글



극회장 류성환(건축93)

언

제나 그랬듯이 한 겨울의 송대극회 극회실은 따뜻했다. 열정적인 무대위 몇 사람들의 눈망울이 그랬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 또한 그러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을 그들은 따뜻히 만들고 있었다. 이젠 봄인가?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풀려간다. 나또한... 이젠 그 뜨거운 눈망울을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겨울도 녹여버린 우리 송대극회인들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송대극회를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송대극회 제54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송실대학교 송대극회 동문회 일동

I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자살은 범죄행위와 다름없이 취급되었다. 자살자의 시체는 교수대에 달려지거나 말뚝이 박혀 큰길에 매장되는 등 시체 모독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유럽 각국의 법률에는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자살자 모독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었다. 초기 이런 행위들은 자살자의 망령을 두려워한 원시적인 공포에서 비롯되었는데, 기독교가 자살을 죄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살인죄와 같이 여겨졌다. 실제 성경에는 자살을 금하는 구절이 없으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살을 자기 살해, 신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의미로 해석,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인간 존중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그 가족에게까지 가혹한 법을 적용시킨 것은 자살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지속시켰다.

이런 자살에 대한 태도는 최근에 와서야 변화가 생겼다. 자살을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자살이 죄악시되는 제제에서 벗어났으나 인간의 영혼을 중시여기는 관점에서 멀어져 인간에 대한 무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하였다. 결국 자살은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통계, 기록에 의지하는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분석되어 인간 존재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살의 연구』(알프레드 알바레즈)에서...

II

〈김현묵〉 단막극 『어둠의 집』(부제: 찢겨진 잠옷) - 희곡문학 1990년 겨울호
『자살』 - 희곡문학 1991년 여름호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이 그것인데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은 집단과 개인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경우 일어나는 것이며,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 부적응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이다. 자살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고 있다. 각 장의 사건들은 자살자들이 죽음을 선택한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죽음은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고발적인 내용은 자살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사회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 작품 속의 죽음은 무

관심과 소외에 의한 죽음이기도 하다. 자살자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의 의미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부각된다. 그들은 사회의 무관심, 소외라는 상황 속에 있으며, 그것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다. 서장의 세 명의 배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과 자살을 막을 수도 방조할 수도 있는 사람과 간접적인 가해자의 구도는 전체 극을 이끄는 큰 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철학자의 입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문제로 제시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사는 것인가? 아니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진짜 문제로다」-라고...

III

-自殺, 왜 하는가? -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학업문제나 열등감, 어른들의 꾸중등을 이유로 투신 또는 목을 매 생명을 포기하는 충동적인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년 여성층은 생활고나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과 함께 자기집에서 연탄가스 중독이나 음독을 통한 동반자살이 흔하며, 고령층의 경우 신병을 비판하거나 절망감등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숙명적 자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대 의학과 박사과정 박동철씨가 신문에 게재된 자살 기사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른 자살동기는 <경제적 가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갈등><부부갈등><학업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의 심리적 원인은 <절망 및 고독감><열등감><갈등상황도피>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층별 자살률은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10대순이며, 남녀비율은 2.02대 1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많고, 토요일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의 노년층은 주말에, 기타연령층은 주초나 주중에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원작에 따르면 80년대 군사정권안에서의 죽음을 소리를 통해 "...자살로 추정됨"이라는 모호한 증언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 부분을 90년대의 지금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노인, 학생, 중년남자, 전태일 이야기 등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는데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기획 한석윤(기계91)

기획의 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봄이 눈앞에서 손짓합니다.

어느덧 잊혀지려 하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 겨울속에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려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새롭게 함께 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 § 무대밖의 아름다운 사람들 § • • •



무대감독 양현준(법학90)



무대장치 현승옥(불문90)



무대장치 남재우(전자90)



무대미술 김상경(전자91)



섭 외 이명성(기계92)



일러스트 송숙희(영문92)



소 품 김은성(정통92)



음 향 류민주(국문94)



조 명 정재훈(수학95)



분 장 임가영(물리94)



분 장 이정미(섬유95)



진 행 박지희(정의95)



연출 손미라(사사93)

연출의 변

내 나이 여덟에 죽음을 보았고,
내나이 열다섯에 죽은 자를 동경했고,
내나이 열아홉에 주검이 되고자 했다.
내안에 숨쉬고 있는 미친 피 덕분에...

“자·살·자·살·자...”

96년 어느날, 자살을 그리기 시작한다.
96년 오늘, 자살을 한다.
난 살고 싶지 않다 아니, 살리고 싶다.



한석운(기계91)

농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김형근(국문92)

노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 § 무대안의 아름다운 사람들 § •••



정석용(경영90)

철학자

취해야 한다,
취한다,
취해야 하나!



이충희(전기91)

배우2, 남학생1, 노총각, 회장 달2

진실을 얼마나 진실히
원했는가!
하지만
정정 더
진실이
무서워진다.



조태희(섬유92)

의사, 허무, 중년남 자, 배우1, 달1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장공은 나
보고 더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
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서수경(정통94)

배우3, 여자1, 여 학생2, 진행자, 달3

고요가 깨어지고 있
다. 혼들림..멀미..구역
질...
♥드디어 나의 자유!!
와하하-
나는 미친 것이다.



김귀하(건축95)

남자1, 남학생2, 연담자, 달4

학교생활이 지겨워...
(술을 마신다)



권내리(불물95)

야중말, 여학생1, 여자, 달5

누가 그러더라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신하영(건축95)

야중말2, 가정부, 노파

‘곧 봄이 올텐데...’

도와주신 분들

탈춤지도 ● 송민연(이재일(기계94)외)
사진촬영 ● 건축과 실루엣
(진병진, 이경은(건축95))

송대극회 신입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단 한번의 공연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 주겠다는
오만함은 없습니다.

단지
무언가에 미쳐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중에서
꿈을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송대극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연습일지 §

1월

- 8 공연연습을 위한 첫모임. 작품이 결정됐다.
'kill myself' 'commit suicide' "자살" - 대본 나오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 첫 Reading
- 9 Training시작, 벽적지근한 몸
즉흥적 시간 -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설정들, 성격Test
- 11 편견없애기 - 자기도 모르는 아집들
- 12 족구, 이겼다!!
- 16 연출님이 맛있거 일용할 양식을...
- 17 무대에 누우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평화로운 소리뿐
- 18 대학로로 '미친 사람들'보러감 - 경근형 반가워요!!
- 20 Study - 연극론
- 21 포미야! 생일 축하한다!
- 22 Casting - 목적지 다가오는 책임감
신뢰감 형성 Game - 좀 믿어봐! 너무 무거워
- 23 무대에서 자기 배역으로 첫 Reading. 대행 출다, 극장이...
- 24 자살하는 사람의 유연 즉흥연기 - 웬지 슬프다
즉흥연기도중 극장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흰머리 아저씨 - "너희들 위해!"
- 25 소리각색을 위한 입맞춤. 자살클럽? 노인들 자살, 중소기업, 학생들의 죽음...
- 26~28 MT 변산반도로...
쏟아지는 별을 보며 등대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 이건 무슨 소리?
"사람살려~"... 그렇게 우리의 xx선배님은 살아난 것이다. 우ha-ha!!
- 29 함박눈.. "나가서 눈싸움 하자!"

2월

- 1 대본 놓음시다 - 더듬거리며 무대위에서 대본 없이 대사를 치다
무대에서 놀자 - 약 쇼크, 디비디비딤, 사람들 표정이 왜 저래?!
- 2 집중력 놀이 ... '시장에 가면 콩치도 있고 참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넙치도 있고,
어, 어, 뭐더라... 넌 빠져~!' 충희형도 합류 드디어 Cast가 다쳤다!
- 5 탈춤 배우기 시작 - 춤선생 고마워요... '낙양동천어화정, 덩 덕 덩 덕 얼수~!'
- 7 관찰력 놀이. 난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 8 탈춤 3일째, 에구구~ 오늘이 피크일거라는 춤선생의 말! 우린 기어다니고 있다
- 9 홍보 video 촬영 - 극회에 오지마! 우리로도 벅차
- 11 xx선배님 때문에 PT체조가 싫어진다. 1000번을 무슨 수로 해?
- 12 갑자기 생긴 하루간의 휴일.. 그래도 웬지-
- 13 극장 좌석 보수공사 들어감. 무대에서 밀려난 우리는 과학관 대강당에서 무대를
그리워하며 연습을.../느린 탈춤 배우기 시작, 이번에 허리가 뻐뻐하군...
- 14 춤선생을 향해 날카로워지는 배우들의 눈초리... 심상치가 않군...
- 16 졸업식. 선배님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맥주 99잔 뽀작났네~!
- 17 과연 자살은 왜 하는가?!
- 19-20 까지설날. 그래서 우린 쉬었다는 것이다. 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1 태권도를 배웁시다
- 23 D-13 무섭다.../귀하 귀빠진 날
- 24-25 Setting 포식한다. 실 생각을 하지 않는 극회인들, 사진촬영
Setting 날에 가장 멋있어지는 극회인들
- 27 그디어 조명작업, 무대 위에서 빛을 받다니. 이 감격! 아니~ 극회 남자들이 멋져
보이는군...
- 29 소품, 의상이 점점 완벽해지는데...살쥔 토끼xx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 3/6 내일이면 공연이라는데... 정말 공연을 하긴 하는지... 이 떨림은..
- 3/7 공연! 시~작!!

| | | |
|---|---|--|
| <p>큐피드 RESTAURANT</p> <p>● (지하) ■ 송실대</p> <p>Tel. 812-4361</p> | <p>자미분식</p> <p>● 지하 ■ 송실대</p> <p>Tel. 816-9835</p> | <p>대림스넥</p> <p>* 강남시장의 명소!</p> <p>Tel. 817-9404</p> |
| <p>이레김밥</p> <p>주문도시락 단체주문 환영</p> <p>● 송실대</p> <p>Tel. 816-6137</p> | <p>취중천국(2F)</p> <p>정문앞</p> <p>Tel. 813-4929</p> | <p>바니치킨</p> <p>■ 정문 ●</p> <p>Tel. 812-6764</p> |
| <p>T · SUN</p> <p>?</p> <p>후문뒤</p> | <p>고래집</p> <p>* 신장개업*</p> <p>■ 정문 ●</p> <p>Tel. 816-6137</p> | <p>민속주점</p> <p>■ 정문 ●</p> <p>Tel. 817-6901</p> |
| <p>동원당구장</p> <p>* 최신설비 * 최고의 서비스</p> <p>■ 송실대</p> | <p>여 · 우 · 사 · 이</p> <p>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자</p> <p>● 송실대</p> <p>Tel. 815-8694</p> | <p>희망의 속삭임</p> <p><REST & HOF></p> <p>Tel. 814-1969</p> |
| <p>청춘분식</p> <p>■ 송실대 ● 청춘분식</p> | <p>GURS</p> <p>원두coffee 전문점 송실대 정문 앞</p> <p>☎ 824-7346</p> | <p>BIG</p> <p>불임걸 호프 SINCE 1991</p> <p>☎ 817-8196</p> |

1921년 연흥회 소인극을 전신으로 하여
솔한 국내외 화제작을
무대에 올려온
송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제54회 봄 정기공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1회 대학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바탕으로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대학극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일신방직주식회사

••• § 정기공연 연보 § •••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 1921년 6.13 | 연흥회소인극 "천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마국 노래의 밤" | | |
| | 1923년 7.7, 21 | 관원극 "우리의 불행" "동백꽃" "십년 후" "기계인간" 열명장년의 주관 | | |
| | 1923년 7.28, 29 | "소인연극" 고학영후원회 주관 | | |
| 1 | 1965년 11. | "계급으로 돌아오다" 황영석작 | 이 반 | 전진호 |
| 2 | 1968년 10.28 | "Out Town" by Thom Wilder | | 이태우 |
| 3 | 1969년 10.10 | "화자들" 이오네스코작 | | 이태우 |
| 4 | 1969년 10.28, 29 |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 | 고보인 |
| 5 | 1970년 5.15 | "쌍둥이의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 | 한영재 |
| 6 | 1970년 10.28, 29 | "승부의 對峙" 사무엘 베케트작 | | 김양기 |
| 7 | 1971년 5.26, 27, 28, 31 6.1, 2 |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간담목 삼화" 윤조병작 "담배배우에 대하여" 안도 재홍작 "황금단지" (모리극) 푸라우이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작 | | 정중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태 차원재 |
| 8 | 1971년 11.4, 5, 11 |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스작 | | 차원재 |
| 9 | 1972년 5.21, 22, 23 | "생일파티" H.핀터작 | | 한영재 |
| 10 | 1973년 15.21, 22, 23 | "미시시피의 결혼" F.워렌아트작 | | 고보인 |
| 11 | 1973년 10.25, 26, 27 | "방" H.핀터작 "기도" (소극장) F.이리벨작 | 김득남 | 차원재 |
| 12 | 1974년 5. 25, 28, 30 |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카뮈작 | | 정중화 |
| 13 | 1975년 6.9, 10, 12, 13 | "복음서의 산책" "도스프예르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 김홍수 | 안홍순 |
| 14 | 1975년 10.29, 30, 31 | "비디안과 반화법" Max Fish작 | 김기열 | 안홍순 |
| 15 | 1976년 6.1, 2, 3 | "인터뷰" 장 클로드 판 이델레작 | 김기남 | 김득남 |
| 16 | 1976년 10.25, 26, 27, 28 | "렘" 장 클로드 판 이델레작 | | 김영덕 |
| 17 | 1977년 6.15, 16, 17, 18 | "EQUUS" 피터 웨더작 | 백영철 | 김영덕 |
| 18 | 1977년 10.10, 11, 12, 13 | "EQUUS" 피터 웨더작 | 방영철 | 김영덕 |
| 19 | 1978년 6.5, 6 |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작 | 방영철 | 김영덕 |
| 20 | 1978년 10.24 | "EQUUS" (대학연극 연극에 참가) 피터 웨더작 | 민승기 | 김영덕 |
| 21 | 1979년 6.18, 19 | "환상 2979" 김영덕작 | 정재호 | 이병국 |
| 22 | 1979년 9.29, 10.2 | "초분" 오재석작 | 이정일 | 황정순 |

| | | | | |
|----|-------------------------|----------------|-----|-----|
| 50 | 1994년 5.26, 27, 28 | "굿타이" 닐 사이먼 작 | 정석용 | 소장호 |
| 51 | 1994년 9.29, 30, 10.1 |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작 | 소장호 | 박원상 |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23 | 1980년 11.5, 6 |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작 | 엄세범 | 박영권 |
| 24 | 1981년 6.12, 13 | "노부인의 방한" F.워렌아트작 | 이종규 | 황정순 |
| 25 | 1981년 11.12, 13, 14 | "달맞이꽃" 김병봉작 | 권석근 | 황정순 |
| 26 | 1982년 5.12, 13 | "카리굴라" A.카뮈작 | 윤대용 | 지 숙 |
| 27 | 1982년 10.7, 8 | "세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작 | 전희식 | 황정순 |
| 28 | 1983년 6.20, 21 | "미시시피의 결혼" F.워렌아트작 | 전희식 | 김영덕 |
| 29 | 1983년 10.7, 8 | "트러버" John Bowne작 | 이원우 | 오정열 |
| 30 | 1984년 5.24, 25, 26 | "도가니" (Teh crucible) A. Miller작 | 이종규 엄세범 | 오세환 |
| 31 | 1984년 10.11, 12, 13 | "번진쇼" John stollenberg작 | 차세훈 | 이용섭 |
| 32 | 1985년 5.9, 10, 11 | "반인간" Maxim Gorky작 | 김상현 | 이용섭 |
| 33 | 1985년 11.21, 22, 23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레스키 | 최승민 | 송기범 |
| 34 | 1986년 6.4, 5, 6 | "에쿠우스" "EQUUS" 피터 웨더작 | 허성무 | 최승민 |
| 35 | 1986년 9.11, 12, 13 | "코렐소" F.이오네스코작 | 안상준 | 송기범 |
| 36 | 1987년 6.3, 4, 5 |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 권형진 이준석 | 오정열 |
| 37 | 1987년 9.10, 12, 13 | "오세" A. Camus작 | 오정열 | 박경근 |
| 38 | 1988년 6.2, 3, 4 |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작 | 이종일 | 오정열 |
| 39 | 1988년 10.6, 7, 8 | "안녕?, 못내봐!" Dario. Fo작 | 권태수 | 송근호 |
| 40 | 1989년 5.25, 26, 27 | "농녀" 윤조병작 | 천승범 | 안신후 |
| 41 | 1989년 10.10, 17, 18 | "대상당의 살인" T.S.Eliot작 | 오정열 | 이 반 |
| 42 | 1990년 5.24, 25, 26 | "안티고네" 장 아누이작 | 권태수 | 이준석 |
| 43 | 1990년 8.30, 9.1, 2 | "한여름밤의 꿈" 황석영작 | 천승범 | 이영민 |
| 44 | 1991년 5.30, 31, 6.1 | "생일파티" H.핀터작 | 남재우 | 권승재 |
| 45 | 1991년 9.5, 6, 7 | "남계" 이상작 | 양현준 | 권형진 |
| 46 | 1992년 3.19, 20, 21 | "우린 나팔을 불었다" 김상원작 | 임경화 정현용 | 홍은영 |
| 47 | 1992년 9.17, 18, 19 | "금관의 예수" 김지하작 | 홍석환 | 송근호 |
| 48 | 1993년 5.20, 21, 22 | "세일즈맨의 죽음" A. Miller | 황영덕 | 박원상 |
| 49 | 1993년 10.21, 22, 23 | "텍시, 텍시" 김상수작 | 소장호 | 박원상 |

| | | | | |
|----|------------------------|----------------------|-----|-----|
| 52 | 1995년 5.25, 26, 27 | "장자추의 여자" 김윤미작 | 현승욱 | 류성환 |
| 53 | 1995년 10.12, 13, 14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JM 로스본작 | 김은성 | 남재우 |

••• § 신입생활영공연 연보 § •••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1 | 1975년 3.10, 11, 12 | "악마와 춤" W. Aning 작 | | 김홍수 |
| 2 | 1976년 10.29, 30, 31 | "보석과 여인" 이강백 작 | | 김득남 |
| 3 | 1977년 3.16, 17, 18 | "출발" 윤대성 작 | 전경호 | 안홍순 |
| 4 | 1979년 3.29, 30 | "셋" 이강백 작 | 한 철 | 정재호 |
| 5 | 1981년 3.30, 31 | "ARIA DA CAPO" E.St. V. Millay 작 | 이영환 | 오세환 |
| 6 | 1982년 3.24, 25 | "일곱년 뒤는 당나귀 키" 김용락 작 | 최시영 | 이용섭 |
| 7 | 1983년 4.16 | "블레코베디" 피터 웨더 작 | 전희식 | 홍여석 |
| 8 | 1984년 3.8, 9 | "개인의 소공인" N.Holand 작 | 차세훈 | 김인보 |
| 9 | 1985년 7.20 | "ARIA DA CAPO" E.St. V. Millay 작 | 이영민 | 최승민 |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10 | 1986년 3.17, 18, 19 | "인형의 집" 헨리 업젠작 | 이길영 | 김정운 최성진 |
| 11 | 1987년 3.12, 13, 14 | "더러운 손" J.P.살포르트작 | 백은현 | 박경근 |
| 12 | 1988년 3.24, 25, 26 | "불가불가" 이현화작 | 천승범 | 황금실 |
| 13 | 1989년 3.23, 24, 25 | "육인수녀를 위한 건초막" A. Camus작 | 홍덕태 | 박경근 |
| 14 | 1990년 3.8, 9, 10 | "우울증 환자" Botoh Strau-ß | 이영민 안상준 | 박해숙 백요라 |
| 15 | 1991년 3.7, 8, 9 | "노크노크" 글스파이퍼작 | 정현용 | 이범준 |
| 16 | 1992년 5.28, 29, 30 | "꿈 먹고 풀어서고" 이근삼작 | 김상경 | 양현준 |
| 17 | 1993년 3.11, 12, 13 | "메두사" Georg Kaiser작 | 소장호 | 박원상 |
| 18 | 1994년 3.10, 11, 12 | "어린왕자" 생텍쥐페리작 | 이명성 | 홍석환 |
| 19 | 1995년 3.9, 10, 11 | "봄날" 이강백작 | 양명호 | 정석용 |

오페라

* 최신설비 노래방 *

Tel. 822-8743

빈털털이

낮에는 점심을
밤에는 술을

● |
■ 숭실대

그린커플

● 그린커플
■ 숭실대

Tel. 816-5196

지희네 집

● 지희네 집
■ 숭실대

연래춘

정통중국요리 전문점
(CHNESS RESTRANT)

● (2층)
■ 숭실대

Tel. 812-9108

대표맥주 하이트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하이트는
지하수자원보전법(이하)
법에 맞고 깨끗한 물을
자르고 있습니다.



100% 알코올로
만든 맥주 하이트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던 하이트 맥주병 위에
알코올(수익)이
신명하게 보입니다.

홍명빈
(국가대표 축구선수)

대표는 대표끼리 통한다!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대표선수라 부릅니다
가장 사랑받는 맥주에게 대표맥주입니다

